

'경륜 베테랑' 85년생 소띠를 주목하라

전영규·김원정...특선급 점령한 '85라인'

우수급 유태복, 특선급 복귀 유력 김홍건은 선발급 강급 직후 3연승



171기 전영규 171기 유태복 18기 김홍건

'흰 소띠 해'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소띠 해를 맞아 2021시즌 경륜을 빛낼 소띠 경륜 스타는 누가 있을까. 경륜선수 541명 중에 주민등록상 소띠 생은 총 40명이다. 1973년생 10명, 1985년생 30명으로 경륜 기수로는 1기 신승수(48세)부터 22기 강준영(36세)까지 이어지고 있다.

저 경륜에 입문한 김동관(13기)과 비선수 출신 계보를 잇는 류재민(15기) 정도만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이후 꾸준히 세를 확장한 85년생들은 2012년 정점을 찍더니 지금은 특선급과 우수급에서 경륜팬을 좌지우지할 만큼 주축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선급에서는 기록 없이 꾸준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전영규(17기)를 중심으로 김원정(16기), 박성현(16기), 이성용(16기), 정재완(18기) 등이 입상후보 내

지 보빙 역할을 꾸준히 이뤄낼 수 있는 선수들로 꼽힌다.

우수급에서는 박민오(19기), 유성철(18기), 유태복(17기), 황무현(16기) 등이 입상후보들이다. 이 중 2011년부터 특선급에서 존재감을 알렸지만 허리 부상으로 아쉽게 우수급으로 강급된 유태복은 올 시즌 개막하면 특선급 복귀가 예상된다. 지난해 강급 이후 3차례 경주에 나선 유태복은 단 한 차례도 3착권 밖으로 빠지지 않으면서 우승 1회, 2착 2회를 기록했다.

상에서 완쾌한다면 황무현의 부활도 기대된다.

선발급은 김홍건(18기)이 승승장구할 전망이다. 우수급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김홍건은 지난해 강급 직후 가볍게 3연승을 차지했다. 신인들과의 경쟁 속에서 적극적인 몸싸움과 노련한 경기 운영이 강점이다. 강급 직후 올 시즌 데뷔전을 치를 서한글(18기), 이주하(16기) 등이 눈여겨 봐야할 선수다.

박정우 경륜위너스 예상부장은 "올해는 성실함과 우직함, 강인함이 대명사인 소의 해다. 올해 재계장하면 소의 장점을 닮은 1985년생 베테랑 선수들은 물론 1973년생 망명으로 불리는 소띠 선수들이 등급을 막론하고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민 인기 경륜 안전지원관, 사고차량 잡아 화제



민 인기 안전지원관

민 인기 경륜 안전지원관(61세)이 대전시에서 음주운전 후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차량을 추격 끝에 잡아 경찰에 넘겨 화제가 되고 있다. 민 인기 경륜 안전지원관은 지난 5일 오후 8시쯤 대전시 갈마동의 골목에서 한 차량이 주차된 차량 5대를 추돌하고 도주하자 100여 미터 가량 쫓아가며 도주 차량 앞을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음주 운전자를 제압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농도 0.222%로 면허취소 수준(0.08%)을 크게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량 5대의 측면과 후면 등을 충돌한 것은 물론 민 인기 경륜 안전지원관에게도 폭력을 휘둘러 얼굴 등을 다치게 했다.

'사회공헌 앞장' 광명 YMCA에 감사장 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기금조성총괄본부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대표적 사회 공헌 프로그램인 '마음 따라가는 자전거 길'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공단과 경륜사업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광명 YMCA에 감사장을 수여했다. 광명 YMCA는 2017년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손잡고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등에 과몰입된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마음 따라가는 자전거 길'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게임 중독과 관련된 예방·치유 프로그램 중 심리 상담과 체육활동을 접목시킨 국내 유일의 프로그램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광명 YMCA의 적극적인 협조로 당초 1회차(총 10주)만 계획된 프로그램을 2회차(각 6주)로 나눠 실시했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절차를 준수해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정용운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알고보면 더 재미있는 경정 전법

경정은 모터보트가 각 턴 마크를 선회할 때마다 튀는 시원한 물보라와 함께 선수들의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선사한다. 경정 선수들은 자주 구사하는 전법이 있다. 어떤 전술을 사용할 것인지 스타일을 예측하고 출주표와 예상지에 수록된 입상 시 전법 등을 활용한다면 관련 재미는 더욱 커진다.

● 입상 확률 높은 '인빠지기'

인빠지기는 1코스에 배정받은 선수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이다. 스타트 라인 통과 후 1턴 마크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코스의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 점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속과 모터 기력을 갖췄다면 입상권 진입에 가장 유리하다. 1코스는 역대 승률과 연대를, 삼연대에 있어 가장 높은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바깥쪽 경쟁 상대들과의 스타트 경쟁에서 밀리거나 턴 마크 선회 시 초동을 너무 서두르고 실속 및 핸들링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다면 단숨에 무너질 수 있는 위험 부담도 있어



경정 경주에서 2번 선수가 1번 마크에서 공격적인 전술인 휘감기를 시도하고 있다. 경정에는 휘감기를 비롯해 1코스 배정 선수가 쓰는 인빠지기, 휘감기와 비슷한 붙어돌기, 난이도 높은 전법인 휘감아찌르기, 찌르기 등 다양한 전법이 있어 이를 분석하면 경기 중 볼 만 한 흥미 포인트가 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 공격적인 전술 '휘감기'

휘감기는 공격적인 성향의 전술이다. 2코스부터 나머지 코스에 위치한 선수들 모두 구사할 수 있다. 안쪽에 경쟁 선수를 두고 바깥쪽을 스치듯이 강하게 돌아나간 후 스피드를 살려 선두권을 노리는 방법이다. 휘감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스타트 타이밍을 한 템포 빠르게 잡아나가야 한다는

● 휘감기와 비슷한 '붙어돌기'

붙어돌기는 휘감기와 비슷하지만 파위와 시속은 살짝 약한 전법이다. 안쪽 선수의 오른쪽에 바짝 붙어 선회하는 전술인데 다음 턴 마크 공략을 두고 의도적으로 붙어 도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당초 휘감기를 시도하려고 했으나 스타트와 선회 시

시속을 완벽하게 살리지 못해 붙어돌기 그림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 고난이도 전법 '휘감아찌르기'

휘감아찌르기는 휘감기와 같이 2코스부터 6코스에 위치한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전법이다. 3코스에 배정받은 선수가 휘감아찌르기를 구사한다면, 1코스에 위치한 선수가 인빠지기를 구사하는 사이 바로 옆에 있는 2코스 선수를 먼저 휘감고 그 다음에 인빠지기를 하고 지나간 1코스 선수 안쪽을 파고들어 내선을 잡는 기술이다. 동시에 두 가지 전법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화려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대의 타이밍을 읽는 시야와 경기 경험이 필요하다.

● 주도권 잡는 '찌르기'

찌르기는 안쪽 선수가 턴 마크를 선회할 때 바깥에 있던 보트가 안쪽 공간을 치고 들어가서 주도권을 잡는 전법이다. 스타트 시속이 비슷해 무리하게 휘감기를 구사할 수 없을 때 선택할 수 있고, 아예 처음부터 안쪽 선수에게 밀려 가는 것을 피하고 싶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정용운 기자

즐거움 TV·독특한 TV...TV프로그램 (13일·수)

Table with columns for various TV channels (KBS, SBS, EBS, JTBC, MBN) and their respective programs. Includes a large text box for '조영규, '곤충 요리 전문가' 장모님과 눈맞춤' on Channel A.